

# 소견서

존경하는 한국광학회 회원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영욱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팬더믹의 어려운 상황에도 연구 활동에서 보여주신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기여를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먼저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제32대 한국광학회장 후보로 나서는 저의 뜻을 회원님들께 감히 밝힙니다.

1989년 10월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광학회가 어느덧 33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원로, 선배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중견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광학과 레이저기술을 중심으로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융합하는 열린 학술의 장으로서 학문 증진과 함께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진·중견 회원님들의 활발한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 학회는 새로운 30년을 향해가는 힘찬 도약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반자로서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뜨거운 학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집단지성을 극대화하는 열린 학술 활동의 중요성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서로의 연구성과와 전망을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학문은 더 큰 자극과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더 많이**, 이미 우리의 구성원이 된 **다국적의 회원들이 더 편하게**,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학술지를 만드는 데 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융합의 에너지가 넘치는 열린 학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가 내실있게 성장해온 배경에는 분과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분과가 더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학술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렇듯 매우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광학회가 **안정된 조직과 재정**을 갖추고 **더 적극적으로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와 투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으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30년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친구들로 북적이고, 때로는 험한 길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걸어간 그 길이 바로 한국광학회의 역사임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정 영 욱 (서명)